

“1cm² 칸 안에 글씨 쓰다보면 어느새 극락”

화엄경·맹자·성경 신구약 66권까지 세필로 한자를 한 자 한 자씩 새겨넣어 60년간 매일 12시간씩 '수행이자 일상'

“손톱만한 공간? 잡념 지우면 커 보여 작품은 산처럼 쌓이고 보관 만만찮아 후세에 남길 좋은 인연 찾는데 내 바람”

“책은 오래 볼수록 자꾸 깊어져 맥을 알게 됩니다. 글(글씨)도 쓰게 되면 글의 이치와 사리를 저절로 터득하게 돼요.”
농산(農山·속명 이원식·77) 스님은 '서예 울력'을 통해 종교간 벽을 허물고 대중과 활발히 소통하는 스님으로 유명하다. 그냥 '글씨'가 아니다. 스님은 가로 세로 1cm²의 공간에 세필로 한자를 한 자 한 자 새겨 넣는다. 금강경, 화엄경, 능엄경, 지장경과 같은 불경뿐만 아니라 명심보감, 소학, 대학, 맹자 등 유경전도 필사했다.

심지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신구약 66권도 썼다. 모두 한자다. 화엄경은 60만자, 성경은 130만자다. 130만자를 쓴 화선지 94장을 병풍으로 만들면 96쪽, 길이는 100여 미터에 달한다. 완성하는 데에 몇 년씩 걸리는 극한의 작업이다. 그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경이로움을 느낀다. 세필만이 아니다. 때론 대필로 화선지를 우주로 삼아 용이 승천하듯, 호랑이가 포효하듯 휘몰아치기도 한다.

농산 스님에게 글씨를 쓰는 일은 수행이자 일상이다. 스님은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 내가 해야 될 일이라 할 뿐”이라고 했다. 스님은 60여 년 동안이나 이 고된 작업을 통해 불력을 쌓아 왔다.

● 획이 어긋나는 순간 '탁' 터졌다

농산스님은 조부에게 한학을 배워 어려서부터 지필묵을 가까이 했다. 본격적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한 데에는 '인연'이 있었다.

“젊은 시절 여러 재주를 가진 스님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누가 나보고 글씨를 써보라고 해서 쓰는데 쪼그맣게 쓰고 있으니 옆에 있던 사형이 '크게 써' 하면서 나를 탁 때렸는데...”

붓이 흔들리면서 획이 어긋나는 순간, 스님 표현으로 '탁' 터졌다. “그 이후 전에 쓰던 글은 못 쓰고 새로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이 세계는 몰라요. 말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수행이라고 해도 손톱만한 칸 안에 한글보다 획수가 훨씬 많은 한자를 하루 종일 쓰는 일은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하기 힘든 작업이다. 그런데 스님의 말이 신묘하다.

“글을 쓰고 있으면 이 사각형이 점점 크게 보여요. 글씨를 쓰는 데에 전혀 지



동서양의 경전을 60여 년간 세필로 쓴 농산스님. 동안거, 하안거가 아닌 '서(書)안거'를 평생 하고 있는 스님의 삶은 제자와 신도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장이 없죠.” ‘공이 수박 만하게 보였다’ 라던 전설적인 메이저리그 홈런타자의 말이 떠오른다.

정작 어려움은 다른 데에 있으니 바로 마음이다. 처음 마음과 글의 마음이 동일해야 글자의 크기도 같을 수 있다. 잡념이 비집고 들어오는 순간 무너지고 만다. 스님은 한 글자만 틀려도 처음부터 다시 쓴다.

● 인연이 닿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농산스님의 제자인 해찬 스님은 “(농산)스님은 글을 쓰라고 하늘이 내리신 분”이라고 했다. 해찬 스님의 귀뜸에 따르면 농산스님의 하루일과는 이렇다.

매일 오전 자전거를 타고 동네(경남 진주)를 한 바퀴 돌고 나서 차 한 잔을 마신 뒤 아침 겸 점심식사를 한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대략 12시간 걸린다. 작업 중에는 선승이 안거하듯 바깥출입을 끊고 '글자'라는 화두를 잡고 매진한다. 이쯤 되면 스님들이 겨울, 여름에 나는 동안거(冬安居), 하안거(夏安居)가 아니라 '서안거(書安居)'다.

농산스님은 무욕, 무소유의 삶을 살고 있다. 외부의 도움 없이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한다. 스님은 “나랏돈으로 산다”며

웃었다.

스님은 해병대 출신으로 베트남 참전 용사이다. 스님은 “정부에서 나오는 연금으로 전기로 내고, 버스 타고, 종이와 묵(먹) 산다”고 했다.

해찬 스님은 신묘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주었다.

“스님께서 글을 쓰실 때 제자들, 신도들이 옆에서 볼 기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뭉쳐서 기가 짝뿔러 나가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신기한 경험이지요.” 이 얘기를 들던 농산스님은 “그럴 땐 글씨를 쓰면서 힘이 하나도 안들지”라고 거들었다.

스님이 쓴 글자들은 모여 거대한 불탑을 이루기도 하고, 한반도가 되기도 한다. 대필로 휘날려 쓴 '용(龍)'은 당장이라도 몸통을 뒤뉘며 승천할 듯 힘차다.

스님은 “어디로 가든 내 거처에는 늘 휘발유 여덟 통이 있다”고 했다. 언제라도 자신의 작품들을 남김없이 태워 없애 버릴 준비를 해놓은 것이다. 무욕, 무소유의 스님다운 생각이지만 제자, 신도, 주변사람들의 생각은 다르다. 인류 문화유산과 같은 스님의 글들이 세상에 공개돼 인연이 닿는 사람들의 집에, 일터에, 박물관에, 전시장에 남아 귀한 영향을 미치고 깨달음을 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세필로 쓴 탑 모형의 '지장경', 대한민국 전대 위에 쓴 '금강경', 대필로 쓴 '용(龍)'(위로 부터). 사진제공 | 황해자

바라기 때문이다. 스님의 지인들은 “인연이 생겨 작품이 팔리더라도 외국에는 절대 내보내지 말아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번 나가면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농산스님은 인터뷰 말미에 극락에 대해 말을 꺼냈다.

“죽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극락도 죽음의 한 부분”이라고 했다. 다할 극(極)에 즐거움 락(樂). 삶을 다 했다는 뜻이다. 글자가 다들 뿐 열반이나 극락이나 맥락은 같은 것이다.

스님이 “하나 가져가리라”며 건네준 화선지에는 일필휘주로 '진심진실(眞心眞實)'이 쓰여 있었다. 참된 마음으로 행하면 참된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의미라. 글자 하나하나가 저마다 다하여 영원한 즐거움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었다.

스님에게, 글이 극락이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최우식의 180도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다. 드라마 '그 해 우리는'에서는 귀여운 캐릭터로, 영화 '경관의 피'에서는 냉철한 모습을 선보인다. 사진제공 | SBS-(주)에이스케이퍼무비박스

최우식 극과극 매력 안방·극장 동시공략

'그해, 우리는' 달달한 매력...넷플릭스서 인기몰이 내년 1월5일 개봉 '경관의 피'서 액션 소화 경찰역

배우 최우식이 안방극장과 스크린을 동시 공략한다. 현재 방영 중인 SBS '그 해 우리는'의 주연으로 나선 데 이어 내년 1월5일 영화 '경관의 피'로 관객을 만난다. 두 작품에서 보여줄 매력이 극단적으로 달라 더욱 눈길을 끈다. '그 해 우리는'으로는 달달한 청춘 로맨스를 그리고, '경관의 피'로는 신념으로 필름 문장 강인한 경찰을 연기하며 이미지 변신을 꾀한다.

'그 해 우리는'에서 그는 첫사랑 김다미와 티격태격 로맨스를 쌓아가고 있다. 극중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 역을 맡아 고교시절부터 20대 후반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이미지를 동시에 선보이고 있다. 소심하고 어리바리한 모습이 귀엽다는 평가를 받는 평소 매력까지 더해지면서 온라인상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화제성 조사회사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이 최근 발표한 12월 2주차(6~12일) 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순위에서 7위에 올랐다.

'그 해 우리는'는 영화 '기생충'으로 해외에도 이름을 알린 그에게 로맨스 주역으로서 새롭게 발돋움할 기회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는 3%대(닐슨코리아) 남시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방송과 동시에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로 공개해 20일 오후 현재 베트남 2위, 인도네시아 3위 등 동남아권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개봉을 앞둔 영화 '경관의 피'에서는 180도 다른 연기를 펼친다. 극중 광역수사대 에이스 경찰관 조진웅을 비밀리에 감시하는 신입경찰 역이다. 신념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조진웅과 대립과 공조 사이를 오간다.

최우식은 “이전에 보여주지 못한 강인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강렬한 액션 장면도 소화했다”고 밝혔다. 함께 호흡을 맞춘 조진웅도 “내재된 카리스마가 제대로 나왔다”며 극찬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sports2i 스포츠투어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결과									
프로배구 <20일>									
●도드람 2021-2022 V리그 <남자부>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득점	실점	연속	
1	대한항공	17	10	7	30	1535	1453	1승	
2	KB손해보험	16	9	7	29	1471	1412	1패	
3	한국전력	15	10	5	27	1270	1235	1승	
4	OK금융그룹	16	9	7	23	1420	1435	1패	
5	삼성화재	16	7	9	22	1417	1461	1패	
6	현대캐피탈	16	6	10	19	1370	1455	5패	
7	우리카드	16	5	11	18	1391	1423	2승	
●도드람 2021-2022 V리그 <여자부>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득점	실점	연속	
1	현대건설	16	15	1	45	1406	1172	3승	
2	도로공사	16	12	4	34	1341	1225	8승	
3	GS칼텍스	17	11	6	34	1349	1222	1패	
4	인삼공사	15	10	5	30	1144	1071	1패	
5	흥국생명	16	4	12	12	1245	1366	1승	
6	IBK기업은행	16	3	13	8	1168	1346	3패	
7	페퍼저축은행	16	1	15	5	1121	1372	10패	

해외축구 <20일>									
●프리미어리그 경기결과									
맨체스터시티 4 - 0 뉴캐슬		토트넘 2 - 2 리버풀		울버햄튼 0 - 0 첼시					
●분데스리가 경기결과									
뉘른 1 - 0 슈투트가르트		프라이부르크 2 - 1 레버쿠젠							
NBA <20일>									
●경기결과									
시카고 115 - 110 LAL		디트로이트 100 - 90 마이애미		피닉스 137 - 106 샬럿		세크라멘토 121 - 114 샌안토니오		미네소타 111 - 105 댈러스	
		포틀랜드 105 - 100 멤피스							
NHL <20일>									
●경기결과									
베가스 4 - 3 (승부차) 뉴욕		워너버 4 - 2 St. 루이스							
피츠버그 3 - 2 뉴저지		LA 3 - 2 워싱턴							

아마추어 경기결과 <20일>									
●배드민턴 ●2021 화순 이용대배 전국 학교 대학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전남 화순) ●남자 중등부 단식 8강=이선진(하안중) 2-0 이시현(전대사대), 조현우(신상중) 2-1 박건후(하안중), 정이수(수원원일중) 2-0 김우후(스펙트럼), 이종민(하안중) 2-0 신태현(거창중) ●여자 중등부 단식 8강=김태연(명인중) 2-1 유다은(김천여중), 이다현(대전법동) 2-1 최은영(성지여중), 김도연(대전법동) 2-0 오윤솔(명인중), 문인서(명인중) 2-0 안수민(청송여중) ●남자 중등부 복식 8강=김민승, 현수민(전대사대) 2-1 진건희, 홍지호(당진중), 심민혁, 이은우(진광중) 2-0 유원빈, 정윤영(화순중), 나성수, 장민승(의정부스포츠토토) 2-0 박지원, 이지담(오산스포츠토토), 이종민, 이영우(하안중) 2-0 정이수, 조은성(수원원일중) ●여자 중등부 복식 8강=유다은, 변우리(김천여중) 2-0 오윤솔, 문인서(명인중), 김도연, 이다현(대전법동) 2-0 최은영, 이서연(성지여중), 이기원, 유수연(명인여중) 2-0 황유진, 김한솔(남원중) ●중등부 혼합 복식 8강=조원진(신상중), 박승민(안주중) 2-1 조은성(수원원일), 조은진(명인중), 이선진(하안중) 선비(충곡중) 2-0 변재홍(김천중앙중), 정민교(김천여중), 정성욱(김천중앙중), 변우리(김천여중) 2-0 추준연(대림중), 이서연(성지여중), 강대경(봉곡중), 임민지(청송여중) 2-0 강민성(정음중), 권서연(김제여중)									
경기예고									
프로농구 <21일>									
●2021-2022 KGC 정관장 남자프로농구									
인삼공사 <안양실내>		가스공사							
오후 7시, SPOTV2									

프로배구 <21일>									
●도드람 2021-2022 V리그 <여자부>									
흥국생명 <인천삼산월드>		인삼공사							
오후 7시, KBSN스포츠									
●도드람 2021-2022 V리그 <남자부>									
우리카드 <창릉체육관>		한국전력							
오후 7시, SBS스포츠									
아마추어 경기예고 <21일>									
●배드민턴 ●2021 화순 이용대배 전국 학교 대학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전남 화순, 오전10시)									
●탁구 ●2021 다카 아시아 남자 챔피언스 트로피대회(방글라데시 다카)									
●태권도 ●2022 세계선수권대회 파견 국가대표선비 1차 평가전(무주 태권도원, 오전10시)									
●리틀리깅 ●제 49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레슬링선수권대회(강원도 양구문화체육회관, 오전10시)									
●역도 ●제 11회 한국대학생역도연맹회장기 역도경기대회(서천군민체육관, 오전10시)									